

## 중국의 신중간층

세계 제2의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에는 중산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산에 근거한 계급이 없다는 말이다.

중국을 방문한 일본국회의원들에게 장쩌민이 일본은 최고의 사회주의국가라고 칭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안정된 중산층이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는 통념이 깨지는 장면이다.

그런데 중국에 중간층이 등장했다. 다만 중국의 중간층은 사회의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이며 엘리트이다.

중국의 최대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2001년 전국조사를 통하여 중국사회를 10대계층과 5대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경영관리자, 사영기업가, 외국기업의 화이트칼라 사원, 전문직, 공무원, 개인사업가, 상업서비스 종사자를 '사회중간층'으로 분류했다.

이 사회중간층은 전체 취로인구의 약 18%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회중간층은 연령으로 보아 20대 전반에서 40대 전반에 분포한다.

이 중국의 중간층에서도 꽃처럼 새로이 등장하는 세대가 있다. 중국의 '신중간층'이다. 20대에서 30대 중반에 분포한 서구화 세대이며 고소득 세대이다. 이 신중간층은 소득에 있어 다른 세대를 압도적으로 능가한다. 일본경제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연소득 5만위안(약800만원)이 넘는 중국인의 6할이 이 신중간층에 있다.

이 신중간층은 라이프스타일에 있어 서구인과 별 차이가 없다. 예로서 상해권에 사는 신중간층은 PC, 휴대전화 등의 보급률에 일본인에 뒤지지 않는다. 이들은 은행용자로 주택이나 자가용차를 구입하는 것이 첨예한 관심사이며 인터넷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되어 있고 외국어를 대개 이해한다.

IT시대의 신상류층을 가리키는 보보족(bourgeois bohemian의 약자)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쓰인다. 중국을 대표하는 가전기업 TCL은

외국기업이 석권하는 휴대전화 시장에 파고 들어 가기 위하여 보석이 박힌 휴대전화를 출시하기도 했다.

이 중국의 신중간층은 평생직장으로 서구기업을 압도적으로 선호한다. 그 이유를 단지 높은 임금이라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서구의 자본주의와 소위 코드가 맞는 것이다.

중국의 신중간층이 한국의 386세대 보다 세계관에 있어 훨씬 자본주의적이라는 사실은 매우 아니러니컬하다. 이 신중간층은 9할 이상이 주식투자를 하며 미국의 패권주의를 싫어하나 반미주의를 외칠 시간이 없고 공산당에의 입당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어 결심한다.

전후세계경제 있어 최대의 외자도입국은 미국이었다. 그러나 2002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대의 외자도입국이 되며 41만을 넘는 외국기업을 끌어들여 안고 있다. 문제는 이 기업들이 중국의 엘리트층을 썩쓸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니코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신중간층이 선호하는 직장은 압도적으로 서구기업이며 그 다음으로 자유업, 공무원, 국유기업, 사영기업의 순이며 그 다음으로 일본기업이 랭크 되어 일본재계에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물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기업은 그 다음이다.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면 건강부회일까? **코볼**



CJK스트래티지는 국내외 정상급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회사로, 국제적·전략적 이슈들에 대한 신속한 정보 및 분석 등을 제공하고 있다.